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김창락*

1. 신약성서 번역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의 하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호티’(ὅτι)와 ‘가르’(γάρ)의 의미를 올바르게 살려서 번역하는 일이다. 영어와 독일어에는 because/for, weil/denn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리스어 접속사를 번역하는 데 형식상의 난관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자들은 때때로 이 문제에 특별한 곤혹을 당하게 된다. 한국어에는 영어나 독일어와는 달리 그리스어의 ‘호티’나 ‘가르’에 대응되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에도 이 두 접속사의 의미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한국어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술어(述語)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 접속사에 담긴 의미를 표현한다. 즉 ‘하므로’, ‘하기 때문에’, ‘하니’ 등등과 같은 형태로 술어가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번역문의 문장 구조는 원문의 구조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문장론적으로 분석하면 ‘호티’/because/weil이 이끄는 문장은 종속절이고 ‘가르’/for/denn이 이끄는 문장은 대등절인데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종속절이 대등절로 또는 대등절이 종속절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문장의 의미는 그 안에 사용된 낱말 하나 하나의 총화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통해서 결정된다. 즉 어느 한 문장의 의미는 전후의 문장과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문장이 문장 구조적으로 종속절인지 대등절인지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접속사의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면 문장 구조가 파괴되고 문장 구조에 충실하려고 하면 접속사의 의미가 상실된다.

* 성경원문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신약학.

이 문제는 특히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번역할 때에 발생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 「표준새번역」의 ‘개정원고’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의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3-10절과 누가복음 6장 20-21절의 복 선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것이기 때문이다’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은 다 같이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접속사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것이다’라고 번역했다. 이와 달리 일찍이 「개역판」은 단순히 ‘것이니라’하는 대신에 ‘것임이니라’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접속사의 의미 또는 영역본 성경에 사용된 for라는 대등접속사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고심했다. 최근에는 가톨릭 교회의 「200주년 기념성서」가 또한 이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애썼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

그렇다면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번역한 개정판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번역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번역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필연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옮겼느냐는 논란과 어떤 번역문이 우리말 어법에 더 잘 어울리느냐는 논란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가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번역문의 질을 평가할 때에 원문의 의미에 충실함과 우리말 어법에 어울림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느냐는 물음은 사람에 따라 답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의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표현하듯이 언어 미학적 감각이 결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더 좋으냐는 판단도 각 사람의 주관적 느낌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문장의 번역에 대한 평가를 해결 불가능의 문제로 보류해 둘 수는 없다. 사실 그리스어의 ‘가르’라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는 한국어 번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King James Version(KJV), Revised Standard Versio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 Luther Bibel(LB), Züricher Bibel(ZB) 등등은 ‘호티’와 ‘가르’의 의미를 변별해서 번역할 때에 거의 기계적으로 because/weil, for/denn으로 대입시켜 번역했다. 이와 달리 많은 경우에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New English Bible(NEB), 「영어판 예루살렘 성서」, Die Gute Nachricht는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접속사 없이 번역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은 놀랍게도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접속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번

1)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임. 뒤의 표에서는 「표새개정원고」로 함.

역했다. 이것은 ‘가르’의 번역은 서구어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신약성서에서는 ‘호티’와 ‘가르’의 의미가 명확하게 변별되어 사용되지 아니했는가? 그렇지 않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야지 팥으로 메주를 쑤면 잘못이듯이 ‘호티’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가르’를 대치하거나 ‘가르’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호티’를 사용하면 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에는 ‘호티’가 ‘가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가르’가 ‘호티’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리고 ‘호티’가 적절한지 ‘가르’가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그리스어 어법의 불명료성이나 어느 저자의 표현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그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적 사고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호티’나 ‘가르’가 사용된 문장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번역하면 이 두 접속사는 똑 같이 ‘키(כי)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키’라는 접속사는 앞뒤의 문장과의 내용적 관련 속에서 ‘호티’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가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 A: “바람이 솔솔 분다. 햇볕은 쨍쨍 쬐다.”

B: “태풍이 불었다. 파도가 쳤다.”

위의 A, B 두 글은 각각 두 가지 자연 현상을 아무 접속사 없이 이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글의 독자는 앞뒤의 두 가지 자연 현상 사이의 관계를 추리하면서 읽는다. 즉 두 문장 사이에 적합한 접속사를 삽입시킨다. A는 “바람이 솔솔 분다. 그리고/그런데 햇볕은 쨍쨍 쬐다”로, B는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파도가 쳤다”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현상과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 현상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나 상관 관계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고 단순히 병렬되어 있는 셈이며 태풍이 분 현상과 파도가 친 현상 두 현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원인이 된 현상을 부사절로 표현하면 “태풍이 불어서/불었으므로/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쳤다”로 되며, 결과로 나타난 현상 다음에 독립 문장으로 연결하면 “파도가 쳤다. (그것은) 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로 된다.

C: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다.

C에서 앞뒤의 두 문장 사이에는 어떤 의미상의 관계가 있는가?

1) “봄이 왔다. 그리고 제비가 돌아왔다.”

2) “봄이 왔다. 그래서 제비가 돌아왔다.” “봄이 와서/왔으므로/왔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왔다.” “제비가 돌아왔다. 봄이 왔기 때문이다.”

C는 위와 같이 1) 2) 두 가지 해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

3)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으니.” “제비가 돌아왔으니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온 것을 보니 봄이 왔다.”

3)의 경우에는 필자/화자가 봄이 왔다는 판단/인식/주장을 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다. 봄이 왔는지 아니 왔는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달과 날의 도래나 기온의 변화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3)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제비가 돌아온 현상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다.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쳤다”와 “봄이 왔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문장에서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와 “봄이 왔기 때문에”는 “파도가 쳤다”와 “제비가 왔다”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표시한다. “제비가 돌아왔으니/돌아온 것을 보니 봄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제비가 돌아왔으니/돌아온 것을 보니”는 “봄이 왔다”는 판단/인식/주장을 하는 데 대한 근거 또는 이유를 표시한다. 전자는 자연적·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두 현상 사이의 인과 관계의 원인을 지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유(思惟)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에서 앞 뒤 현상의 관계는 직접적이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앞 뒤 현상의 관계는 오직 필자/화자/독자/청자의 논리적 사유 작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될 따름이다. 전자에는 원인으로 작용한 현상은 그 결과로 일어난 현상보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행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의견/주장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증거/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원인을 제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제비가 돌아온 것은 봄을 오게 한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비가 왔으므로/왔기 때문에 봄이 왔다”거나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어떤 의견/주장에 대한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는 한국어에는 없지만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에는 ‘가르’/for/denn이라는 접속사가 있다. 이것은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문장 뒤에 놓인다.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말을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에서 접속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려면 “봄이 왔다”는 문장 다음에 ‘가르’/for/denn + “제비가 왔다”라는 대등절을 이어놓아야 한다. 이 경우에 ‘가르’/for/denn을 ‘호티’/because/weil로 대체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4. 그러나 실제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위의 A, B, C의 사례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어느 한 쪽으로 이해되지 않고 양쪽이 다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갑돌이는 게으르다. 그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말에서 “갑돌이는 게으르다”는 사실은 “그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갑돌이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는 현상은 “그는 게으르다”라는 판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도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를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신약성서에는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기 애매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발언을 할 때에 뒷 문장에다 ‘호티’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표현했다. 그렇다면 “그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는가? 그럴 수 없다. 만일 원인이라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현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선행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현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주장의 논리적 근거/이유/증명이다. 다행히 모든 한국어 성서는 16절의 ‘호티’-절을 이유/근거를 표시하는 부사절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개역)/“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표준, 새번역)/“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200)라고 옳게 번역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고 KJV(흠정역), LB(루터 성서), ZB(취리히 성서), DJB(독어판 예루살렘 성서)는 이것을 because/weil로 번역했다. 그러나 NIV, RSV, NRSV 그리고 빌켄츠(U. Wilckens)의 신약성서는 이것을 for/denn으로 번역했다. NEB(새영어 성서), CEV, EJB(영어판 예루살렘 성서)는 아예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했다.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에 나온 판단/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이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령문 다음에는 ‘호티’절이 연결되기도 하고(약 5:8; 계 22:10) ‘가르’가 사용된 문장이 이어지기도 한다(마 4:17; 롬 13:1). 영어 성서와 독일어 성서는 이 ‘호티’-절을 because/ weil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하고 for/denn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이것은 명령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논리적 이유/근거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호티’, 영어에서 because, 독일어에서 weil이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6. 신약성서 전체에서 ‘호티’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가 390회 쯤 된다. KJV는 이 중에서 230회를 for로, 145회를 because로 번역했다. 이와 달리 NIV는 145회를 for로, 205회를 because로 번역하고 47회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다음에 나오는 <표 1>과 <표 2>를 보면 각 번역 성경마다 KJV가 for로 번역한 것을 얼마나 상이하게 번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 2>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